DEVELOPING A POSTCOLONIAL APPROACH TO HOSPITALITY:
A STUDY OF THE NEWCOMER MINISTRY IN NEULSARANG CHURCH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angsan Lee

May 2019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Kangsan Le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eRan Kim-Crag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9

ABSTRACT

A STUDY OF THE NEWCOMER MINISTRY IN NEULSARANG CHURCH: DEVELOPING A POSTCOLONIAL APPROACH TO HOSPITALITY

by

Kangsan Lee

This research was motivated by th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alienation I faced as a new member at the church during my study abroad in the United States. Its purpose is to listen directly to the experiences of new members in Neulsarang Church that I am currently serving and to analyze how the church is receiving them in order to make it a faith community that welcomes everyone. Since the project involves a qualitative research, I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existing church members who are in charge of practicing hospitality and welcoming new families at this church. Next, I analyzed and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from the postcolonial and hospitality theological perspectives. Finally, I proposed a postcolonial hospitality education and its ministry practices.

The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critical to emploly postcolonial insights when diagnosing problems of discrimination, polarization, and isolation that both church and society face today's the postmodern era. With properply equipped with postcolonial knowledge and approaches, both church and society will become more an equal place for strangers to unconditionally embrace with the mindset of God.

Keywords: Postcolonial hospitality, Paradigm changes, Third domain, Table of hospitality, the Worship of hospitality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내가 미국 유학 시절 교회의 새가족으로서 경험했던 차별, 배제, 소외의 경험이 동기가 되어, 현재 섬기는 늘사랑교회에 있는 새가족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환대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분석하여 모두가 환영 받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질적 연구를 위하여 본 교회의 새가족들과 새가족 환대를 담당하고 있는 새가족 부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결과를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환대 신학 관점으로 분석하고 고찰했다. 끝으로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속에서 다극화, 다양화, 혼종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질 때, 낯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포용을 할 수 있는 평등의 사회가 될 것이다.

키 워드: 탈식민주의적 환대, 패러다임의 변화, 제 3 의 영역, 환대의 밥상, 환대의 예배

SUMMARY

New comers continuously come and go. Church members change. This qualitative research started from the questions 'How would new members who are recently registered at church think and feel belonging church?' and 'How hospitably do the existing church members receive new members?' For these, I, as researcher carried out an in-depth interview with 9 new families who registered at Neulsarang Church over the last 1 year and 4 members serving the new family ministry group who are in charge of hospitality for new comers.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demonstrated that new comers were facing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s well as suppression and coercion to conform to the unity of church. In addition, the members of new family group ministry were experiencing inconvenience due to the absence of awareness and method of hospitality, and differences among the new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ransform Neulsarang Church to a community where everyone is welcomed, by overcoming such elements of conflict drawn from postcolonial insights on hospitality in ways that contribute to healing the church as the worship community of hospitality.

To do so, the researcher first theoretically examined the definition of hospitality in postcolonial discourse. It includes the examination, who the targets of hospitality should be, and how the place of hospitality should be in conversation with various scholars including postcolonial scholar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and a theoretical examination, the researcher proposed a postcolonial hospitality education with practical and pastoral implication. This proposal has several plans: The first is 'Paradigm changes' to pleasantly accept and embrace differences through paradigm changes that go beyond the pursuit of uniformity caused by denying differences. The second plan is 'Otherization.' By listening attentively to others' appeals

and accepting their request we can finally learn from them and grow further. The third plan is 'Creating a church community as the third space.' By admitting and embracing the differences between new family members and non-Christians through 'post- church,' we can make them recognize our church as a third space. To make church the third space, the researcher proposed 'Table of hospitality' and the 'Worship of hospitality.' A church cannot bear its roles as a 'third space' without the changes of postcolonial perception and the correct biblical understanding of hospitality. Homi Bhabha, a renowned postcolonial scholar, said that 'A third space' can be interpreted as a new world that is no different from heaven for some.

In short, church must be a changing, fluid, and supple space that is stable for everyone but not stagnan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ll disciples of Christ in recognizing Neulsarang Church not as 'Our church' but as 'God's church,' so that Christianity can becomes a channel that is used to transform its place into the 'Religion of liberation' and not the 'Religion of suppression.'

국문요약

교회에는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 신자로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을까?' '기존 신자들은 새신자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나의 디민 프로젝트와 질적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위하여 본 교회의 1 년 이내로 등록한 새가족들 중 9 명과 새가족 환대를 담당하고 있는 새가족 부원 4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 새가족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획일화 강요로 인한 억압을 받고 있었다. 또한 새가족 부원들은 환대에 대한 인식과 환대 방법의 부재, 새가족과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갈등(conflict)의 요소를 탈식민주의적 환대 관점으로 극복하고, 본 교회가 환대의 예배공동체로 치유(healing)되어, 모든 이들이 환영받는 공동체로 변화(transformation)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탈식민주의 학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환대가 무엇인지, 환대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환대의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질적 연구분석과 이론적 고찰의 과정을 걸쳐, 나는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과 실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째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차이를 부정하여 발생하는 획일화를 추구하는 사고체계를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차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는, ‘타자화’이다. 타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셋째는, ‘제 3 의 공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탈 우리교회화’를 통해 새가족과 비독교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 그들이 교회를 제 3 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제 3 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환대의 밥상’과 ‘환대의 예배’를 제시하였다.

환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환 없이는 교회는 ‘제 3 의 공간’ 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학자인 호미 바바는 ‘제 3 의 공간’을 누군가 천국이나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신세계로 여기는 공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교회는 누구나에게 안정된 공간, 그러나 정체된 공간이 아니라 변화되고 유동적인 탄력적(supple)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도 모두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기독교가 ‘억압의 종교’가 아닌 ‘해방의 종교’로의 전환이 되는 데 나의 디민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왜 환대를 다시 봐야 하는 가?

나는 30 대 초반 미국 유학 시절, 임신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며, 녹록치 않은 유학 생활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가난한 유학생 부부를 진심으로 환대해주는 교회는 없었다. 각 교회 마다 준비 되어 있는 주일 환영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다였다.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유학 생활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내 삶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고 주중 안부 연락은 없었다. 우리 부부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은 '외로움'과 '소외감'이었다. 낯선 곳 변두리에서 아무도 마음을 담아 환영 해주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적지 않은 실망도 했다. 미국 내 한인 교회 새가족 담당자들이 우리 부부에게 물었던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다. '여기 얼마나 계실 꺼예요?'이었다. 질문에 담긴 의도를 추측해 보면, '나그네로서 여기에 얼마나 머물러 지낼 것이냐'이다. 교회 새가족 담당자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비추어 우리 부부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assumption)가 그들의 마음속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진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라 짐작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환대가 아니다. 새가족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만큼은 이방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새가족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그 교회의 구조적이고 긴밀히 구축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신학이나

신앙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가족은 꽤나 오랜 시간 교회 내에서 '서발턴(subaltern)'[1]과 같은 존재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2]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환대 교육은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나는 이러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의 목회 현장인 늘사랑교회 새가족부와 새가족을 중심으로 환대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이며, 또한 새가족들이 교회를 '제 3 의 공간'[3]으로서 여기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새가족을 낯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담을 통해 살필 것이다.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서발턴으로서 존재하게 된 이유는, 기존 성도 뿐 아니라 새가족들조차도 타자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기존 신자들에게 새가족은 타자(他者)이다. 새가족에게는 기존 신자들이 타자이다. 문성훈은 타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타자란 흔히 다른 것, 즉 동일 범주로 취급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사람일 경우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나와 다른 사람,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백인종에 대해서는 유색인종이,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이성애자에 대해서는 동성애자가 타자이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새가족)이 타자이다.[4]

---

[1] 서발턴(subaltern)이란, 남아시아 사회에서의 종속…그것이 계급, 카스트, 연령, 젠더, 지위 또는 그밖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한 이름으로 사용된 데서 비롯되어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 계급 등의 거대 담론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어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리잡았다. 강옥조,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vol 82 (2012), 135.

[2] '새신자가 서발턴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새신자는 어떤 면으로는 서발턴이지만 어떤면으로는 아니기 때문이다. 새신자는 처음에 힘이 없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기신자가 되어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가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다중적 의미의 타자화된 존재이다.

[3] 본 글의 페이지 31 에 있는 '제 3 의 영역'에 관한 설명 참조.

[4]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 21 집, (2011): 392.

그런데 문제는 이 타자에 대한 폭력이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성훈은 자신의 논문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에서 타자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보편주의'[5]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개인은 인종, 민족,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새가족들도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고유의 모습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로 '우리 교회(늘사랑교회)'의 정체성으로 단일화시킨다는 것은 새가족들이 갖는 여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엄연히 이것은 폭력이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새가족들에게 이러한 동일화 혹은 획일화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이제 역으로 '타자(새가족)에 대한 책임', '타자를 위한 해석' 그리고 '환대'의 개념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찰함으로 그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탈식민지주의적 관점으로 새로운 환대 개념을 제시하여 새가족과 기존 신자들 모두가 겪는 심적 갈등 상황을 치유하고 변화로 이끌고자 한다.

B. 논지와 토론

[5] "보편주의란 개별자의 자기동일성과 개별자 간의 보편적 동일성을 전제한 동일자적 사고방식이며, 동시에 보편적 원칙에 따라 인격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개인을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윤리적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편주의란 개별자를 개념적 틀 속에 가두어둔다는 점에서 개별자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개개인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취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 더구나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은 흡사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상향됨으로써 이에 벗어난 타자를 단죄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실제적 폭력을 행사한다."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393-94.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그의 책 *무례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것은 "무엇(what)에 대해서보다는 어떻게(how)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6]고 말한다. 신자들이 새가족을 환대해야 함은 알지만, 어떻게 그들을 공감해야 하는지, 어떻게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타자를 받아들여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마우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앙, 신념,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신앙, 가치들에 귀 기울여야 함을 지적한다.[7]

처음 교회를 방문한 새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다. 교회 안의 공간, 시간, 사람들 모두가 낯설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낯설음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 교회와 기존 출석 성도들의 관심이 턱 없이 부족하다. 김혜란은 "고통에 관심하는 것이 실천신학의 목적이다."라고 말한다.[8] 새가족들은 교회 안에서 약자이고, 이방인이고 돌봄의 대상이다. 또한 교회가 공동체임을 고려할 때에, 새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갈등의 해결은, 개인적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적 치유와 회복이고 온전함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김혜란은, 페미니즘 이론이자 모토인, 'The personal is political'을 인용하면서, 새신자가 느끼는 개인적 소외의 경험은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9]

---

[6] Richard Mouw, *Uncommon Decency 무례한 기독교*, trans. 홍병룡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11.

[7] Ibid.

[8]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강의 중, 06/04/2018 클레어몬트 신학교 강의실 201 호에서

[9] Ibid.

왜 갈등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특정 그룹이 다른 그룹을 억압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회와 기존의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을 억압 할 수도 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기존의 신자들은 여전히 낯섦이 두렵기 때문이다. 새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끼리끼리'이다. 친숙함이 좋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은 낯선 이를 본능적으로 배타한다. 그리고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질서'라는 명분 하에 계급(직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또한 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을 지키고자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새가족들을 마음껏 환대해주지 못한다. 김혜란은 이러한 증상, 즉, 낯섦이라는 경험을 통해 "인간은 본래 존재의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싫어한다."[10]라고 말한다. 내가 아닌 자 (not-self)가 타자(other)로 이해된다는 뜻은, 나라는 존재의 부정, 나의 상실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름을 두려워함 (fear of the other)이 존재의 상실(loss of self)로 이어지기 때문이다."[11] 중심부에 있던 이들이 주변부로 옮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러한 상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했던 기독교 역사의 예가 있다. 비서구 종교를 기독교화시키는 과정 속에 기독교 우월주의와 기독교 중심주의가 나타났었다. 김혜란은 그의 저서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4 장 'Beyond Christian-Centrism'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던 슐라이어마허의(Friedrich Scheiermacher)의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객관적 비교 방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슐라이어마허와 동시대를 살았던 헤겔의 주장을 소개한다:

---

[10] Ibid.

[11]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91.

> 유럽사상가나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객관적 진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슐라이어마허와 동시대에 살았던 헤겔(Georg F. Hegel)은 기독교가 유일한 보편적 종교이며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종교의 유형학(typology)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철학자이다. 이 유형학은 비서구종교가 원시적이고 비역사적이었으며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합하고 교리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지속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2]

이와 같은 상황에 탈식민주의 신학자 곽퓨란(Kwok Pui-lan)은 "신학과 철학이 독일의 민족주의 계급, 인종, 성 및 식민지 판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이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슐라이어마허의 작품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13] 를 설명한다. 독일은 19 세기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진행되는 과정들 안에 그 당시의 소설, 철학적 수필, 정치 서술은 외국 영토를 정복하고 재건하려는 욕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은 슐라이어마허로 하여금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같은 종교를 유아기적 종교로 범주화 하고 계층화함으로써 기독교 패권주의를 가르치게 했다.[14] 헤겔의 변증법 철학은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을 전제로 한다. 그 때문에 서구는 역사적인 발전이 가능하지만 동양은 여전히 반역사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있다.[15] 이러한 상태에 대한 도전으로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 실천 신학은 다른 종류의 지식을 희생하여 이론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을 특권으로 삼는 파멸적인 영향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16] 이렇게 만들어진 계층 구조 속에, 학문적 엄격함과 지적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로렐

---

[12] Ibid., Kindle location 2216-222.

[13]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191, quoted in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 Kindle location, 2228.

[14]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Kindle location, 2236.

[15] Ibid., 2244.

[16] Ibid., 2252.

슈나이더(Laurel Schneider)는 정체성을 "만약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다름(같음의 반대)을, 정체성의 상실로 받아들여지기에 다름을 두려워함으로 이해하게 된다."[17]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는 동일화, 즉, 항상 같은 것도 아니고, 고정되거나 영구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이 항상 동일화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 되는 한, 다중성의 신학과 종교적 혼종성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실천신학은 유동적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유동성은 변화가 없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을 의미한다.

김혜란은 '실천신학'을 보이어(Boyer)의 말을 인용해 "행동의 발판을 마련(staging ground for action)"[18]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즉, '실천신학'이 학문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인간의 삶 속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전통 신학자들은 여성들이 과거에 행해진 전통의식의 진실을 보고, 그 전통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중 시력(double vision)"을 제안한다.[19] 혼종성(hybrid)[20]의 탄력성(suppleness)은 약자, 이주자, 가난하고 식민지적이며 소수 민족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근간하고 있다.[21]

따라서 나는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새가족 부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대 의식과 방법을 고찰할 것이다.

---

[17] Ibid., 2347.
[18] Ibid., 2378.
[19] Ibid., 2571.
[20] 각주 58 의 설명을 참조하라.
[21] Ibid., 2587.

새가족들과 새가족 부원과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된 그들의 경험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 소외, 배제, 억압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은 교회가 변두리와 중심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이들이 환영 받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가족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 3 의 영역[22]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C. 청중

본 연구의 1 차적인 청중은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다름과 차이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 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설교와 교육적 자료들에 외재적으로나 내재적으로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나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2 차적인 청중은 늘사랑교회 교인 전체가 될 것이다. 늘사랑교회는 1991 년 경제적으로 서민층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주축으로 28 년 전 세워 진 인천의 한 교회이다.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새가족부가 될 것이다. 새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많은 애씀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새가족 담당자들이

[22] 호미 바바는 제 3 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화의 의미와 상징들이 어떤 근원적인 통일성이나 고정성도 갖지 않으며, 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제 3 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똑 같은 기호조차 새롭게 지정되고 번역되고 재역사화되며 독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Homi K. Bhabha, *Die Verortung der Kultur*, trans. English by Michael Schifmann (2000), 5-326. quoted in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vol. 39 (2015): 34.

있다. 이들에게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새가족들이 공정한 환대를 받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 증오와 폭력 대신 정의와 평화, 치유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D. 연구의 범위와 제한

본 연구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인천의 늘사랑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2 개월 동안 등록한 새가족들의 이야기와 새가족부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목소리와 생각들을 듣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적이고, 분열과 배제 구조, 억압을 갖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탈식민주의 환대 실천신학에 기반한 개선방향과 제언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제인 '환대를 다시보고,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을 제시'하는 것에 관한 질적 연구는 내가 목회하는 '늘사랑교회'라는 제한성을 지닌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부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질적연구가 행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는 새가족을 중심으로만 고찰된다는 제한성을 가진다.

E. 독창성과 공헌

효과적으로 즉, 방법론적으로 새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환영[23]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와 자료들은 많았다. 그러나 새가족을 주변부, 소외자, 이방인, 서발턴, 나그네라는 관점으로

---

[23] 본 글에서 '환영'과 '환대'를 혼재해서 사용할 것이다. 환영은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의미로 환영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이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는 같다.

바라보고 대하는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노력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새가족(낯선 자)를 사랑하는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을 제시한다는 것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대'에 관한 신학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데 있어 도전을 줄 것이다. 포스트모던,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속에서 다극화, 다양화, 혼종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낯선 자 즉, 새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포용을 할 수 있는 '평등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F. 논지의 흐름

1 장인 '서론'에서 나의 사적인 경험에 근거한 핵심적인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를 제기 하고, 연구할 의제를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논의한다. 나의 디민 프로젝트가 예상하는 청중과 연구의 범위와 제한 그리고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공헌을 설명한다.

2 장인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내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새가족 부원과 새가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하고, 질적 연구 절차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3 장인 '탈식민주의와 환대'에서는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환대가 무엇인지, 환대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환대의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서술한다.

4장인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과 실천’에서는 제2장 질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3장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환대의 이론을 근거로 목회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5장인 ‘결론 및 제언’에서는 한국 교회가 올바르고도 공정한 환대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재론하고, 이 과정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한 개인적인 성찰과 배움에 대해 서술한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참여자

나는 질적 연구를 위해 현재 시무하고 있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늘사랑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출석하는 새가족 부원 4 명과 연구시작 시점으로부터 최근 12 개월 동안에 늘사랑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9 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이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동의서(부록 A 참고)를 통해 얻었는데, 이 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함으로써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비밀보장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참여자에 대해 익명성을 추구하였고, 참여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신상기록을 제한적으로 기술하였다. 인터뷰는 목사와의 관계나 교인들에 대한 평판을 우려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내용의 윤리서약을 동의서에 포함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인터뷰 된 내용은 윤리서약대로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안에 신경 쓸 것이며,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인터뷰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하지만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 했다.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음 등이 사용 된다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은 보호되거나 가명을 사용하게 될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 참여시 참여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설명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 밖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18-003)을 얻어 연구 절차를 밟아 나갔다.

아래의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새가족 부원들(A 그룹)은 개인정보를 위해 나이와 직분 기재를 생략했다. 새가족들(B 그룹)은 20 대부터 60 대까지 그리고 신앙경력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부터 20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A 그룹 (새가족 부원)

구분	성별	직분	나이	신앙경력
연구참여자 A	여	-	50 대	18 년
연구참여자 B	여	-	50 대	28 년
연구참여자 C	여	-	50 대	14 년
연구참여자 D	여	-	50 대	20 년

B 그룹 (새가족)

구분	성별	직분	나이	신앙경력
연구참여자 A	여	성도	20 대	처음

연구참여자 B	남	집사	60 대	22 년
연구참여자 C	여	성도	30 대	3 년
연구참여자 D	여	성도	20 대	처음
연구참여자 E	남	집사	30 대	15 년
연구참여자 F	남	성도	30 대	10 년
연구참여자 G	여	성도	20 대	4 년
연구참여자 H	여	성도	40 대	1 년
연구참여자 I	여	성도	70 대	2 년

B. 연구방법

나는 본 연구를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24]이다.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경험을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주된 연구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현재 늘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새가족을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환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심층 면담 방법을 사용 하였다. 교회 안에서 새가족의 환대를 담당 하고 있는 새가족부원들의 이야기와 새가족들의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는 것이다. 심층 면담이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심층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교회 안에서의 새가족 교육 혹은 체험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내부자적 입장에서 공감함으로써 파악하는

---

[2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연구방법이다.[25] 나는 면담 기법으로 새가족부원들에게는 '반구조화된 면담'[26]을 사용했고, 새가족들에게는 '비구조화된 면담'[27]을 하였다. 새가족부원들에게 사용한 주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새가족 부원이 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② 새가족 부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③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세요?

④ 새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세요?

⑤ 새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고 계세요?

⑥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⑦ 새가족을 환대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새가족들에게 사용한 주된 '비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에 정착 후 신앙생활을 어떠셨나요?

② 교회에서 느끼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요?

③ 새가족 부원들 혹은 기존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④ 새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

[25]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Ⅳ: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26]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 그래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연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Ⅰ: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326.

[27] "비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피면담자와 하는 면담을 말한다… 즉, 비구조화된 면담은 미리 정해진 질문이나 주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 면담하는 것을 말한다… 비구조적 면담은 사회 구성원의 복잡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응답자로부터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bid., 328.

⑤ 새가족으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C. 연구 절차

나는 이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콜라이지 분석 방법은 먼저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 전체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자료를 하나씩 재검토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낸다. 그 다음,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 및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본질적이면서 포괄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28] 이러한 콜라이지(Paul F. Colaizzi)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새가족들과 새가족부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광범위하게 도출해 내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콜라이지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한 새가족들과 새가족부원들에게서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하며, 이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 분석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내가 연구에 사용한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시 녹음했던 것들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둘째, 인터뷰 중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묶는다. 넷째,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한다. 다섯 째,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내용이고 포괄적인 구조가

[28]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125.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29] 심층 면담을 분석하고 수정해 나가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첫 번째 면담자를 면담한다.

② 면담시 대화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를 집중 분석한다. (콜라이지 분석 절차)

③ 면담 과정과 질문에 대해서 수정 할 부분이 있는지 분석한다.

④ 두 번째 면담 질문과 과정을 첫 번째 면담 분석에 따라 수정한다.

⑤ 세 번째 면담을 하고 위의 과정을 따라 분석 수정한다.

⑥ 이후에 모든 면담도 이와 같은 분석 수정 과정을 따른다.

나는 연구자로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중심부에 있는 이들과 주변부에 있는 이들 모두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연구 기간 동안 '에포케(epoché)'[30] 와 '괄호치기'[31]를 수행했다. 나는 연구 기간 동안 '새가족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교회 안에 누가 중심부이고 주변부인지', '교회가 새가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가정', '새가족은 교회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교회에 정착을 잘 할 것'이라는 판단 중지 목록을 만들어서,

---

[2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107.

[30] "에포케(epoché)는 후설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정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로,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95.

[31] "괄호치기(brackrting)는 판단중지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밝히고 그것을 괄호 속에 묶어 둠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괄호치기는 이러한 괄호 안에 우리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장을 해체하고 '열림(openness)'을 다시 찾음으로써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Ibid.

기존 성도와 새가족을 향한 편애/편견/경향성을 배제시키고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판단 중지를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 놓았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일련의 자료들을 콜라이지(Colaizzi)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교회 안 밖에서의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한 결과, 새가족 부원들의 진술에서는 12 개의 주제와 4 개의 주제군, 2 개의 범주로 도출되었고, 새가족들의 진술에서는 11 개의 주제와 4 개의 주제군, 2 개의 범주로 도출 되었다.

새가족 부원들과의 인터뷰 첫째 범주(A)는 '부재'로 2 개의 주제군과 6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범주(B)는 '차이'로서 2 개의 주제군과 6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새가족과의 인터뷰 첫째 범주(A)는 '차별과 배제'로 2 개의 주제군과 6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범주(B)는 '강요로 인한 억압'으로 2 개의 주제군과 5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자료 분석을 아래의 표에서 요약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군 및 주제

(표 2-1) 새가족 부원 대상 인터뷰 결과

범주	주제군	주제
A. 부재	1. 환대 방법의 부재	1) 어떻게 환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 성경적인 환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3) 실행 지침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4) 새가족이랑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2. 지속적 환대의 부재	1) 지속적으로 새가족을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새가족 관리프로그램이 없어요.
		2) 제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새가족을 지속적으로 인해서 돌볼 수 있는 재정적・시간적・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B. 차이	1. 수용의 어려움	1) 우리랑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2)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경우가 많아요.
		3)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 불편함	1) 자꾸 이전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해요.
		2) 저도 사실 사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3) 성별이 달라서 따로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표 2-2) 새가족 대상 인터뷰 결과

범주	주제군	주제
A. 차별과 배제	1. 예배 안에서	1) 우리는 예배 기도 순서에 왜 못 들어가죠?
		2) 예배 위원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3) 무언 사회라서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잘 몰라서 불편했어요.
	2. 교회생활에서	1) 5주 양육이 끝난 후에 교회에서 점심을 누구랑 먹어야 할 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 봉사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3)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B. 강요로 인한 억압	1. 교회 안에서	1) 의무로 5주간 새가족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어요.
		2) 예배 후에, 새가족끼리 4주간 구별된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가 불편했어요.
		3) 너무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2. 교회 밖에서	1) 새가족 등록 심방이 부담스러워요.
		2) 기존의 내 삶의 패턴을 너무 갑작스럽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각각 2 가지(총 4 가지) 범주들을 탈식민주의적 환대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탈식민주의적 해석의 작업은 "학자들이 식민주의적 혹은 신식민주의적 수사들과, 식민주의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속되는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억압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모순들을 조사하면서, 분석과 저항과 재건을 하려는 것."[3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사랑교회 새가족 부원들이 새가족들을 환대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무엇인지, 새가족들은 경험 속에서 어떠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억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탈식민주의 담론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탈식민주의 담론은 식민자나 피식민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억압과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이론으로서 기능한다. 탈식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는 억압의 정체를 밝히는 유용한 담론이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우리가 모르는 역사와 문화의 유산 속에서 식민주의의 영향과 잔재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타자화 되어 억압당하고 있거나, 혹은 억압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사회적 억압의 정체들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기 이해를 형성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33] 그러므로 박충구는 탈식민주의 담론이 문화와 종교, 지식의 체계속에 교묘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삶과 사상의 식민화를 규명하고 교정하는 비판이론이 우리의 담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탈식민주의 담론은 억압구조 안에서 또 다른 억압을 후원하는 인식론적 폭력을 읽어 낼 수 있고, 연대기적인 특정한 식민적 상황을 넘어서서 인간의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성 등의 분과적 영역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허위 보편성으로

---

[32]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ds.,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5), 2,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5.

[33]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vol. 49* (2004): 201-02.

위장된 억압과 지배 구조를 밝혀 낼 수 있도록 조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식민 담론은 특히 서구/비서구 지식인들의 지적 생산물들 속에 유입된 식민적 시각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일종의 자기 비판적 해방적 담론을 통하여 일상의 억압과 지배를 해체하고 피억압자들의 인간다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34]

따라서 교회를 향한 탈식민주의 담론의 역할은 교회가 스스로 자기 비판이 가능한 타자의식을 지닌 공동체로서 사회의 변화,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한다. 즉 교회가 억압과 지배의 힘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의 삶과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론적인 힘을 가지도록 돕는 이론인 것이다.[35]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석하고 도출된 연구 결과를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D.1. 부재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첫 번째 범주는(표 2-1:A)는 ‘부재’이다. 새가족 부원들조차 환대가 무엇인지, 낯선 이들을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즉, ‘환대의 개념 부재’와 ‘환대 방법의 부재’이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모르는 것과 같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그녀의 저서 *공정한 환대*에서 정의, 평화, 그리고 자연계의 본래 모습을 가져와서 창조물들을 개선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임을 강조한다.[36] 새가족 부원들은 환대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러셀은 오늘날 같은 여러 형태로 부재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빠진 사람들”[37]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낯선 자들이 결코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

[34] Ibid., 204.
[35] Ibid., 213.
[36]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7.
[37] Ibid.

교회는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빠진 자들'로 있는 그들을 공정하게 환대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있음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새가족 부원들인 연구 참여자 A, B, C 는 새가족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A: 제가 새가족을 환영할 수 있는 그릇인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고요. 새신자를 응대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로봇 같지만 외워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B: 새가족을 환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환대가 뭔지 궁금해요.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제 마음이 좀 새가족을 향해 더 열릴 것 같아요. 새가족과 주일 날 마음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서로에게 집중도 못하고, 괜히 눈치가 보여요.*
>
> *C: 우리 새가족부가 새가족을 5 주 동안 돌보아도, 그 다음 지속적으로 새가족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원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참 아쉬워요. 저도 사실 제 삶이 바빠서 새가족들에게 시간이나 마음을 줄 여유가 없네요. 제가 다 부족한 탓이지요 뭐.*

교회가 새가족 환대를 위해, 새가족부를 만들었지만 부원들에게 제대로 된 환대의 개념과 환대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새가족 부원들 스스로가 환대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다. 즉, 새가족 부원들은 새가족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가족을 환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환대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체제적이고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그리스도의 제자직*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시초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교회는 몸을 가진

인격”[38]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웃을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이해하고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사귀고, 더불어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39]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자들 간의 올바른 환대교육에 대한 부족(부재)으로 나는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그의 책 *무례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것은 “무엇(what)에 대해서보다는 어떻게(how)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0]고 말한다. 신자들이 새가족을 환대해야 함은 알지만, 어떻게 그들을 공감해야 하는지, 어떻게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타자를 받아들여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마우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앙, 다른 신념, 다른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신앙, 가치들에 귀 기울여야 함을 지적한다.[41]

D.2. 차이의 부정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두 번째 범주(표 2-1:B)는 ‘차이’이다. 기존 성도와 새가족 간의 생각, 경험, 세대 차이에서 오는 ‘수용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결과에서 나타났다. 새가족 부원들인 연구 참여자 A 와 D 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38]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275.
[39] Ibid., 297.
[40] Richard Mouw, *Uncommon Decency 무례한 기독교*, 11.
[41] Ibid.

A: 새가족들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점이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양육 같은 것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그들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영성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새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 교회 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B: 새가족들은 자꾸 이전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전 교회는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고 우리 교회 사정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도 주일만큼은 좀 쉬면서 마음 편하게 말씀에 은혜 받고 가고 싶은데 새가족을 응대하면 너무 피곤해요. 남자 성도가 새가족으로 오면 마땅히 응대할 사람이 없어요. 저 뿐만 아니라 부원 대부분이 이성을 불편해 할 걸요?

러셀(Letty M. Russell)은 그의 책 *공정한 환대*에서 환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대는 위기에 빠진 이 세상에 치유와 정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가담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42] 차이를 넘어서는 일은 분명 쉽지 않다. 특별히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유교문화를 근간으로 성장하고, 식민지배 생활의 상처가 남아서 '자기 것을 지켜내는 것'에 익숙한 한국 교회에는 더욱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식민지배의 잔재 중 하나는 바로 획일화이다. 자신들과 다르면 잘라 버리거나, 잘려지는 튀지 않아야 하는 문화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로렐 슈나이더(Laurel Schneider)는 정체성을 "만약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다름(같음의 반대)을, 정체성의 상실로 받아들여지기에 다름을 두려워함으로 이해하게 된다."[43]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체성은 동일화가 아니다. 정체성 자체는 결코 고정되거나 영구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

[42]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7-48.

[43]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Kindle location, 2347.

기독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 되는 한, 다름을 품는 '다중성의 신학'과 낯섬이 필수적인 '종교적 혼종성'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차이에 서툴고 동질성의 세계를 고집하는 듯한 교회 안에서 '차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차이를 사랑하시고 획일성을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하나님은 안팎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무지개 다양성을 보여주는 유쾌한 차이의 세계를 창조하셨다."[44] 레티 러셀(Letty M. Russell)는 성경본문의 두 곳을 근거로 삼아 차이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한다. 하나는 창세기 11:1-9 의 바벨탑 이야기와 사도행전 2:1-12 의 오순절 이야기이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언어를 뒤섞은 것은 지배 권력과 획일성에 의해 타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차이를 선물로 응답한다는 이야기이다. 오순절 이야기 속에는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했다는 일치의 이야기가 나온다. 일치는 지배와 획일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얻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의도이다.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차이는 한 그룹의 속성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룹들 사이의 관계의 작용과 그룹들이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으로 생겨난 것이다."[45] 아이리스 영은 차이를 억압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집단간 차이를 억압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입장은 절대적 타자성, 상호 배제, 집단 범주간의 절대적 대립(categorical opposition)으로 정의한다. 차이를 이렇게 본질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동일성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 한 집단이 척도

---

[44]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17.

[45]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56-91,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18.

규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 규범에 비추어서 나머지 모든 집단이 측정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공통 잣대로 이루어진 통일성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그 척도 규범에서 암묵적으로(표준이라고) 상정되는 특정 집단의 속성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탈적 존재로 구성한다.[46]

즉, '차이'를 '배제'로 바꾸어 놓고 만다는 것이다. 차이가 '다름의 인식'이 아니라 '차별'로 이어진다. 실제로 새가족들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범주 결과가 도출되었다. 차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해 될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차이와 다름 때문에 생기는 배제를 '인정'과 '존중'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D.3. 차별과 배제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세 번째 범주(2-2:A)는 '차별과 배제'이다. 새가족들이 교회와 예배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차별과 배제 감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만, 예배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예배 안에서 '대표 기도'나 '예배 위원'을 할 수 없었고, 무언 사회인 예배 안에서 그 순서를 안내 받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 시, 당혹감과 배제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또한 봉사 위원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자신들은 '봉사의 자리에서 배제'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기존 성도들끼리의 사이가 너무 돈독한 것은 좋지만, 자신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고백도 하였다. 새가족 연구 참여자 B, D, I 는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B: 교회에 등록한지 1 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예배 때 대표기도 한번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집사인데 한 번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를 못하는 것도

[46]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룩, 2017), 365.

아니고… 예배 위원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는 교회 법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잘 뭉쳐서, 도대체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친한 건 좋은데, 새가족인 나를 좀 챙겨주고 함께 어울리면 안 되나요?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고, 차가운 것 같아서 요즘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있어요.

D: 4 주간 새가족을 위한 별도의 식사 자리가 있어서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누구랑 점심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안 먹고 갈 때도 많아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 그러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뻘쭘해요.

I: 난 아직도 예배가 힘들어요. 앞에 띄워져 있는 것(스크린)만 보고 예배를 빨리 빨리 진행해 나가는데 나는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성경 찬송은 찾을 시간은 줘야지. 오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직 순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가 아직도 어렵기만 하네요. 언제 일어나고 앉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어령은 우리 민족은 유형, 무형의 '끈'이 우리를 지배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고립이 되면 '끈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47]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 등 혈연의 끈, 지연의 끈 속에서 얽히고설켜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저마다 그 끈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정리된 끈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게 되면 그 끈이 엉키어 버려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관계의 끈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낯선 이를 쉽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 속한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기존의 신자들은 여전히 낯섦이 두렵다. 새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끼리끼리'였다. 친숙함이 좋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은 낯선 이를 본능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한다. 그리고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교회 안의 질서'라는 명분 하에 계급(직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또한 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을 지키고자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새가족들을

---

[47]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문학사상사, 2002), 126.

마음껏 환대해주지 못한다. 오현선은 완다리(Wanda M. Lee)의 글을 인용하여 차별을 "어느 한 그룹이 다른 한 그룹에 대하여 선호도를 달리하여 행동을 취할 때 나타나는 것"[48]이라고 하였다.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주관적 판단을 하거나 강압적 변화 요구를 하고, 집단끼리만 어울리게 되면 차별이 가시화가 된다. 푸코(Michel Foucalult)는 권력의 본질을 "다수의 자리와 통로를 통하여 행사되는 비인격적인 힘"[49]이라고 간주한다. 오현선은 차이를 차별화시킴으로 나타나는 '내면화된 억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차이를 차별화하려는 폭력성은 억압집단의 자본과 권력이 크면 클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화가 일어나 그 결과로 차별받는 집단의 성원들마저 차별적 신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50] 그들에게 '체념적 수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체념적으로 그 상황과 문제들을 수용하게 내면화 되어 버리는 것이다. 교회 안에 예를 들어보면, 새가족들이 기존 신자들은 교회 일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기존 신자들이 하는 일은 옳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이다. '차별의 내면화'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해서, 차별적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회는

---

[48], Wanda M. Lee,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Counseling* (Philadelphia: Accelerated Development, 1999), 12, quoted in 오현선, *기독교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151

[49] Michel Foucalt, *History of Sexuality* (1976), quoted in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이해," 196.

[50] 오현선, *기독교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153.

예배를 통하여든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을 이용하여 새가족 혹은 낯선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D.4 강요로 인한 억압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네 번째 범주(표 2-2:B)는 '강요로 인한 억압'이다. 현재 내가 시무하고 있는 늘사랑교회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할 시에는 무조건 5 주간의 양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양육을 해야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이 후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 주간의 의무 양육 과정이 새가족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새가족들은 주일 낮 예배 후에, 4 주간 구별된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그 자리 또한 그들에게는 불편한 자리가 됨을 알게 되었다. 새가족 연구 참여자 C, G, H 가 교회 안에서 겪는 '강요로 인한 억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C: 이사를 와서 부득이 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전 교회에서 양육 받았는데 또 양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웠어요. 물론, 저를 위해 시간 내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것은 감사했지만 전에 교회에서 양육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의무로 받으라니 살짝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신앙을 돌아보게 해 준 시간이여서 유익했고, 감사했습니다.*

> *G: 제가 일을 두개 하고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5 주간의 양육을 의무로 받는 다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걸 꼭 해야 한다면, 교회를 옮길까도 솔직히 생각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하고 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새가족끼리 4 주간 따로 밥 먹는 자리는 너무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한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밥 먹기 싫은데, 꼭 먹고 가야 한다는 강요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 *H: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서 일하기 너무 바쁜데,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해서 힘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짤리면, 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제 사정 좀 보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가족 연구 참여자 C 와 G 는 결론적으로 5 주 동안 의무로 양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것을 의무로 했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이야기했다. 또한 참여자 G 에게 있어서 주일 낮 예배 후 식사 자리 강요는, 거의 폭력 수준으로 그에게 다가온 듯 했다. 참여자 H 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권면이, 강요로 느껴졌고 그것은 불만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스템과 배려가 때로는 상대로 하여금 억압과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교회가 얼마나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상황에 무관심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 A 와 E 는 교회 밖에서의 강요로 인한 억압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 *A: 양육을 하고 난 후에, 제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 삶의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음은 나오고 싶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술자리도 아직은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술 이야기가 나오면 죄스럽고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갑자기 제 삶을 바꾸라는 좋은 권면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힘드네요.*

> *E: 집이 너무 누추해서 목사님 모시고 심방하기가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식사 대접하기도 힘든 형편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시지 못하고 있고요. 목사님 뵐 때마다 힘이 드네요. 꼭 심방해야 하는 건가요?*

새가족 연구 참여자 A 와 E 는 교회 안팎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과 '변화된 삶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교회 등록 후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는 심방'은,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권면들이지만 새가족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강요가 되고, 심방을 드리라는 강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심방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방 받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분주한 삶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가정적인 불화와 같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예배', '변화된 삶', '축복' 이 세 가지 단어는 다른 어떤 것에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요와 억압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일과 가치 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직업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거룩성'과 '순수성'이라 연결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때로 배타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호미 바바에 의하면 인간은 서로 끊임없이 문화적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화들은 순수성의 지대에 있을 수 없다. 이소희는 호미 바바의 '혼종성'과 '제 3 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경계선 영역(borderline space)을 주목하고 새로운 언어적 기호로 '국가들 사이의 틈새 영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international in-between spa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특징인 자본의 전 지구화 현상으로 사람들의 대 이동이 일어나고 여러 인종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서 문화적 잡종성(cultural hybridity)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의 변화는 지금까지 없었던 잡종적이고 전환적인 정체성을 창출하고 같은 기준으로는 비교가 불가증한 요소들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며 경계적 존재들로 하여금 창조적 긴장감을 유발하게 하는 '제 3 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51]

호미 바바는 '주체의 정체성'이란 것도 타자의 간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심리분석적 유비에 의해 혼종성을 얘기하고 싶다. 동일화는 다른 대상, 즉

---

[51] 이소희, "호미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9-1(2001), 103-04.

타자성이란 대상과의 그리고 그것을 통한 동일성 확인의 과정이다. 이 점에서 동일화의 행위자(agency), 즉 주체는 언제나 양가적이다. 이는 타자성의 간섭 때문이다."[52] 즉, 호미 바바는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경과 출신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사는 이들과의 공존적 삶이라는 것이다. 즉, 자아(self)와 타자(other, not-self)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체성 형성, 변화, 그리고 성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계적 이해를 통해 '혼종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화해와 해방을 이루어, 지배적 이데올로기들과 체제들로부터 자유하여 '강요로 인한 억압'을 만들어 내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통해 공존적 삶을 만들어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는 새가족에 대한 환대의식과 방법의 부재,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생되는 획일화, 이로 인한 차별과 배제, 억압의 극복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 3 장에서 탈식민주의 이론과 환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탈식민주의적 시각은 우리의 '의식'은 물론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침투해 있는 서구중심적 사유체계를 비판하고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식민지였던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서구에 예속되어 있는 한 재식민(recolonial) 상태 혹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소위 신식민(neocolonial)상태에 놓여 있기 십상이다.[53] 소위 문화제국주의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

[52] Homi K. Bhabha and Jonathan Rutherford, "The Third Space – Interview with Homi Bhabha,"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 Jonathan Rutherford (London :1990), 207–221, quoted in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34–35.

[53]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72.

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면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서구중심적 제국주의의 발상, 관념론, 이분법, 남성우월주의와 같은 기존 사유체계에 물들어 있는 한 '해방의 이념'이 작동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주의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공정한 환대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식민주의적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해체하여 다시 사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탈식민주의적 사유체계'이다. 다음 장에서 '탈식민주의'와 '환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Chapter Ⅲ

탈식민주의와 환대

A. 탈식민주의 이론

탈식민주의적(postcolonial)이란 말은 식민화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거쳐, 독립을 성취하고, 현재의 신식민주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지어낸 용어다.[54] 식민주의는 끝나지 않았고, '탈'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미국을 포함한 기존 제국주의 세력인 중국, 러시아에 의한 전 지구적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 종교가 모든 나라들과 여러 문화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55] 즉,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작동되고 있는 사고체계와 문화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의하면 탈식민주의 논점은 "서양의 가장 위대한 신화, 즉 대문자 역사(History)[56]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전개하는 것"[57]이다. 그러므로 서구 중심의 대문자 역사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도 제국주의적 언어, 문화, 정치 형태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대문자 역사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속에서 종교인은 마치 식민체제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타자를 설정하여 자신과

---

[54]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ds.,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5), 2,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7.

[55] Ibid., 58.

[56] 대문자 역사 'History'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역사를 단일한 틀로 환원시켜 보는 것을 뜻한다. Robert J. C. Young, *White Mythologics 백색신화* trans. 김용규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22, quoted in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22.

[57] Ibid., 11.

구별하고 환원하고 동일화시키는 폭력을 가해왔다.[58] 이에 대하여 이진구는 "기독교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우상숭배,' '미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구 선교사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현재 종교 갈등의 원인"이라 지적했다.[59]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공격적이고,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게 한다. '비종교인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인을 향해 질타하는 원인'[60]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성애는 한국 교회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현상을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한국의 이 같은 현상은 로버트 영이 말한 서구 대문자 역사(History)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의 부재의 결과이다. 이는 곧 '종교 식민화 재생산'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61] 즉, 서구 주체의 일방적인 개념들이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라는 토양에 아무런 비판적 작업 없이 받아들여지고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사 두베(Musa W. Dube Shomana)는 다음과 같이 탈식민시대 주역들로서 함께 일할 계획을 제안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과거와 현재의 제국주의의 기반을 조사하고 지혜와 생명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동등한 주역들로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라고

---

58 허정수, "서구중심주의와 기독교: 기독교 철학과 선교사," *사회과학연구* vol. 16, no. 1 (2008), 628, qutoted in ibid., 12.

59 이진구, "근대 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인식-개신교 오리엔탈리즘과 불교 옥시덴탈리즘", *종교문화연구* no.2 (2000), 161. qutoted in ibid., 12

60 2017 년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5 점 만점에 2.55 점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본 연구 시점에서 가장 최신으로 연구된 결과이다. 조성돈, "국민들이 기독교에 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March 27, 2018, https://cemk.org/7926/ (Accessed January 30, 2019).

61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22.

요청한다."[62] 즉, 교회 안에 성도 누구나가 환경에 구애 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적으로 그들이 의견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출발했다.[63] 즉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탈식민주의에서는 글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글을 쓰던 '당시의 상황' 또한 소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탈식민주의 이론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이러한 까닭에 "하나의 문학 작품은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읽어야 한다"[64]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문화는 일종의 극장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곳이다. 박충구는 사이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사이드는 다양한 문화 비판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식민자에 의하여 열등하게 타자화된 피식민자, 즉 지배자에 의하여 타자화된 피지배자의 문제, 그리고 피지배자를 타자화하는 식민자적 혹은 제국주의적 관점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피식민자란 저항할 줄 모르는 존재, 소리내지 못하는 이들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존재로, 남성적인 강인함 보다는 여성적인 유약함으로, 간혹 인간다움 없는 냉혹한 존재로,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존재로, 그리고 진취적이기보다는 후진적인 존재 등으로 규정되어왔음을 밝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자들이 식민적, 제국주의적 지배의 필요성을 조작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 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65]

---

[62]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60-61.

[63]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 윤리학적 이해" 2 장을 참고하라.

[64]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Distributed by Random House, 1993), xiii, quoted in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세례 예식: 저항과 어파퍼시스(Apophasis) 그리고 제 3 의 공간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vol. 79 (2015): 262.

[65]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 윤리학적 이해," 197-98

결국, 탈식민주의 이론은 자기 자신을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타자화함으로 자기 안에 담겨진 욕망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는 자기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저기 우리 일상의 문화에 '지배적 억압'과 '복종적 순응'의 구조가 있으며, 항시 식민주체와 식민객체가 혼재 되어 있는 두 축을 인정하는 '양가성'을 긍정하는 것이 탈식민주의 이론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자기긍정과 자기부정의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적 삶의 현실을 해체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 해방적 동기를 담고 있다.[66]

B. 환대

"신약성경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크세니아'(philoxenia)로 '낯선 자를 사랑함'이란 뜻이다."[67] 환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관용'과 '환대'의 차이를 분명히 언급하고 싶다. 관용은 주체 중심적인 반면, 환대는 타자 중심적이다. 관용이 여전히 주체의 힘, 즉 '할 수 있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환대는 타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데서 출발한다. 하버마스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이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관용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관용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들, 특히 '이방인'[68]과의 관계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 자기 비판과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

[66] Ibid., 200.

[67] Letty M. Russell, *Church in the Round*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173,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8.

[68] 김광기는 많은 사회 이론가와 철학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산발적으로 일컬어 왔던 '세상에 대해 유리하는 자', '주변인', '경계인', '사회적 타자' 등의 주제를 성경의 개념인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수렴시켰다.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2012): 145-46.

이것은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타인들을 위함이요, 이방인을 위한 것이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69]

데리다 역시 현대사회에서 관용이 필요한 덕목이고 바람직한 덕목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데리다는 이 관용의 개념을 '초대의 환대'이며 '조건적 환대'이며 '실천가능한 환대'라고 말한다.[70] 김광기는 데리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데리다에게 있어, 관용은 '자비의 한 형태'로 '최강자의 논리'편에서 베푸는 일종의 시혜로 '환대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환대의 한계'이다. 관용은 타인을 향해 선한 얼굴로 가장했지만 심중으론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즉 주체는 일정한 선을 그어 넣고 일정 부분까지만 타자를 용인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데리다는 '주권의 선한 얼굴'(the good face of sovereignty)이라 표현했다.[71]

데리다는 환대를 '방문의 환대', '무조건적 환대', '실천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순수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환대', '절대적 환대'를 이야기한다.[72] 그리고 데리다는 '절대적 환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절대적 환대란 나의 집을 개방하고 성(姓)과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는 미지의 절대적 타자에게까지도 거처할 곳을 주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상호성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묻는 것 없이, 그들이 오게 놔두고, 도래하게 내버려두며,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장소에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73]

김혜령은 "낯선 이방인, 과부, 어린이, 병자, 몸파는 여인 등 다양한 이유에서 사회적으로 주류 공동체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에 대한 무한 '환대'가 예수 선교의

---

[69]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2012): 146.

[70] Jacques Derrida, "Autoimmunity: Real and Symbolic Suicide: A Dialogue with Jacques Derrida," in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ed. Giovanna Borradori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127, quoted in ibid., 150.

[71] Ibid.

[72] Jacques Derrida, *Of Hospital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quoted in Ibid., 151.

[73] Ibid., 152-53.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74]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방문의 환대'에 대한 두려움과 이 개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인간이 이 현실적 어려움에 더 이상 그러한 환대를 논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초대의 환대'의 대상과 범위마저 야박해지기 십상이라고 주창한다.[75] 김혜령이 언급한 대로 '절대적 환대', '방문의 환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개념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이상이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말이다.

레티 러셀이 그의 저서 *공정한 환대*[76]를 쓰게 된 배경과 그의 경험과 생각들이 '탈식민주의적 환대'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바,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의 저서 *공정한 환대*에서 그녀 자신이 수십 년간 참여해 온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었고, 주변부를 학문과 저항의 장소로 삼아오면서 환대에 대한 관심이 자랐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생동안 주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내부 안의 외부자'였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여기서 페미니스트적 의식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차이의 세계를 다루는 논의를 밝혀주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환대를 실천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제공해준다. 그녀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타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하면서, '타자'로부터 '동역자'로 움직여 나가면서 환대를 주고 받을 것을 이야기 한다.[77]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

[74] 김혜령,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 *제3시대* vol 92 (2016), 2.
[75] Ibid., 5.
[76]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77] Ibid., 88-89.

구원하시고 먼저 초청하시고 환대해 주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도 낯선 자들이었고 그러니 우리도 낯선 자들을 환대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예수도 마태복음 25:31-36 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한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한다. '낯선 자를 사랑함'이란 뜻의 헬라어 어원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교회가 낯선 자들과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환영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일을 역할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정의는 사람들이 종교적 배경, 성별, 인종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일구어 나가는 터가 되는 것이다. 김혜령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공정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은 더 냉혹하고 각박해지고 말 것이다. 관용을 넘어 초대의 환대를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일구어 나아갈지를 고민할 때이다.

C. 환대의 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낯선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환대이다. 그러므로 환대의 대상은 '낯선 자'이다. 누군가가 낯설다면 그가 바로 환대의 대상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낯선 자가 될 수 있고, 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낯선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새가족이다.

학자들은 '새가족'이라는 용어를 저마다 다르게 정의하지만, 박원영의 정의가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박원영은 그의 저서 *새가족 탄생교실*에서 새가족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완전 초신자'이다. 둘째, 어릴 적 예수

믿다가 다시 신앙을 찾은 사람은 '회심자'라 여긴다. 셋째, 어떤 일로 인해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낙심과 좌절로 고민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낙심자', 넷째, 불교나 천주교와 이단 집단 등을 믿다가 예수를 만나 개종한 사람은 '개종자', 다섯째, 직장, 사업, 학교로 인해 지역을 이동했거나 시대가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신도시로 이사 온 '이동자'를 새가족이라고 부른다.[78] 이 정의에 따르면 새신자는 새가족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새가족의 범위는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뿐 아니라 타 교회나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 모두, 다섯 부류 전체를 포함한다.

성경 안에서 '낯선 자'들을 찾아보자. 예수가 성경 속에서 만난 낯선 이들 중에 오늘 날 교회의 새가족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다.[79]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와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기쁨을 복음으로 동네사람에게 알린 사람이다.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마음 안에 있었다.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살고 있으나 그 아픔을 겉으로 표현 못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런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를 보게 된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온 갖 종류의 아픔과 상처를 저마다 가지고 살고 있다. 교회에 오는 새가족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낯선 이를 대하는 또 한 가지 성경의 예시는 삭개오와의 만남이다. 삭개오는 아마도 남들 보다 훨씬 작은 키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차별을 경험하고 그 수모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그 당시 육체적 장애는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삭개오는

---

[78] 박원영, *새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출판부, 1993), 3.
[79] 요한복음 4:1-43 을 참고하라.

세리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친구와 동료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런 삭개오가 먼발치에서라도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는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는 선언을 하신다. 그 후 삭개오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없었던 '비존재로서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 되었다. 강남순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따스한 연민의 시선'과 '자기 초대'라는 예수의 두 행위를 통해서라고 말한다.[80]

삭개오는 이전에 자신을 고귀한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가 먼저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81]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 만나야 할 삭개오는 누구인가?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먼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그 삭개오는 누구인가? 나는 새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소외 받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새가족을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낯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존 스토트(John Stott)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82]에서 그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갈수록 무기력해져가고 개인주의로 치닫는 이 시대에 큰 도전을 준다. 그는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략 모든 사람'이라면 그 결정은 민주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누구하나 소외된 이가

---

[8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91.

[81]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누가복음 19:9 (개역한글).

[82] John Stott,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 정옥배 (서울: IVP, 2005).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목한다. 그는 지미 래이드(Jimmy Reid)의 말을 인용하여 소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외는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맹목적인 경제적 힘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보통 사람들의 좌절이다."[83] 새가족이 한 교회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얻기까지는 1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정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제 2 절 교인
> 제 35 조(정회원)
> 1.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19 세 이상 된자.
> 2. 타 지교회 및 타 복음주의 교포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자로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 3. 세례 받고 교적이 없는 자로서 6 개월간 무흠하여 당회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
> 4. 이명증서 없이 전입하여 1 년 이상 경과된 자로 당회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단 미조직교회는 담임교역자의 허락으로 입회한 자.[84]

기독교대한감리회에는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고 말한다.[85] 당회원이 되어야만 투표권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입교인이 되려면 우선 적으로 세례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례인과 입교인의 자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 2 절 교인
> ③ 세례인
>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 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 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 ④ 입교인

[83] Ibid., 107.

[8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 112 년차 총회 개정판*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18), 20-21.

[85] 전명구,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 2018), 115.

>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86]

기독교대한성결교는 정회원이 되어야만, 기독교대한감리교는 당회원이 되어야만 발언권과 투표권이 생긴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서발턴(subaltern)'[87]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 발언권, 투표권, 결정권이 없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레 '차별'과 '배제'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태혜숙은 "서발턴이라는 단어에서 'sub'을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우리를 존재케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뜻한다"[88]고 말한다. 새가족들이 아직은 교회 안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들이 교회를 존재케 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교회의 결정사항들은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 이 질문에 이제는 교회는 자신 있게 새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라는 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

D. 환대의 장소

인류는 전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속한 한 국민으로서만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나라 사람과의 관계만 맺고 사는 시대는 사실상 종결이 되었다. 문화, 교통과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 곳에 어울려 사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세상 좁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오늘날이다. 세계가 작아지는 것에 대해

---

[86] Ibid., 51-52.
[87] 서발턴에 대한 설명은 각주 1을 참고하라.
[8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117.

긍정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으로 평가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서로의 이질적인 문화와 차이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탈식민주의 학자인 호미 바바는 전 지구화 과정 속에 틈새 공간으로서 '제 3 의 영역', '양가성(ambivalence)'혹은 '혼종성(hybridity)'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개념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D. 1. 호미 바바의 '모방' (Mimicry)과 '혼종성'(hybridity)

바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이드는 자신의 논의에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식이 실재론(realism)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양의 지식이 단어나 문장으로 말해지면서 고정성을 획득하여 그것이 동양의 현실 그 자체인 것으로 유포된다는 것을 지적한다.[89] 호미 바바는 여기에서 사이드가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으로 부르는 '무의식적 확신(unconscious positivity)'과 동양에 관해 말이나 글로써 똑똑히 나타난 지식과 견해를 나타내는 외형적 오리엔탈리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90]고 말한다. 양가성(ambivalence)으로 정형화된 식민담론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호미 바바의 양가성이 식민담론과 절대성에 대한 분열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공간속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모방'(Mimicry)이다. 호미 바바에 의하면 제 3 의 공간에서만 문화의 혼종화가 이루어 질 수

---

[89] Edward W. Said,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trans.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2007), 139–40.
[90] Homi K. Bhabha,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170.

있다. 호미 바바는 라캉(Jacques Lacan)에서 차용한 '모방'[91]으로 문화의 혼종화와 저항을 설명하고 있다. 바바에 의하면, 모방은 '거의 같지만 아주 똑같지 않은 차이'로서의 모방이다.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한눈에 파악하여 지배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 '나를 닮으라'는 요구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모순된 요구를 한다.[92] 닮음은 지배자들에게 위협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방을 통해 드러난 혼종성, 닮음과 닮지 않음이 섞일 수밖에 없는 피지배자의 경험과 정체성으로 인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 위치와 거대식민담론의 절대성/실재성이 해체된다. 혼종성은 식민주의 담론과 지배자가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 그 때에 지배자의 시선은 피지배자를 응시하게 되고 피지배자는 어떠한 타자화도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혼종적 주체로 변하게 된다. 이성애는 이러한 호미 바바의 혼종성 개념이 서구 중심의 종교성 문제에 내포된 위계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93]

호미 바바의 '모방'과 '혼종성' 담론은 현재 한국 기독교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서구 중심성에 대한 해체이자, 식민 상태에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을 안겨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환대 의식의 부재, 차이의 부정, 차별과 배제, 획일화를 요청하는 억압의 폭력 등이 교회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

[91] "라캉이 말하는 모방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본체로 불리는 것과 구분되는 한에서 무언가를 드러낸다. 모방의 효과는 위장이다. 그것은 배경과 조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얼룩덜룩한 배경을 등지고 얼룩덜룩해지는 문제이다. 그것은 인간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위장의 기술과 똑같다." Quoted in 최종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vol. 61 (2011), 404.

[92] David Huddart, *Homi K. Bhabha,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111.

[93]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42.

이제 나와 타자를 해방시키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탈식민주의적 인식으로 전환 되어야겠다.

D. 2. 틈새 공간으로서 '제 3 의 영역'(The Third Space)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혼종적인 주체가 위치한 곳을 '제 3 의 영역'으로 설명한다. 호미 바바는 경계선 영역(borderline space)을 주목하고 새로운 언어적 기호로 "국가들 사이의 틈새 영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international in-between space"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94] 호미 바바가 1990 년에 편집한 책 *국가와 내레이션*[95]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정의되거나 규정되어 본 적이 없는 '국가들 사이의'(international), '틈새'(in-between)로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개념에 주목하게 한다. 바바는 이 '틈새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국가적인 문화를 '위치짓기'(locality)는 그 자체 내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되지도 않았고 단일한 것도 아니며 그 바깥이나 너머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하게 '타자'로 보여서도 안 된다. 그 경계선은 야누스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밖/안의 문제는 항상 혼종성(hybridity)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들을 혼합하고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을 생산해 내며 또 필연적으로 그 정치화의 과정에서는 재현을 위하여 누구도 예상 할 수 없는 힘과 정치적인 적대심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을 생산해 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96]

[94] 이소희, "호미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한 고찰: 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103-04.

[95] "국가와 내레이션(Nation and Narration)은 영국이란 국가에 대한 의식(national consciousness)을 주제로 하여 여러 비평가들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바바는 그 책의 서문에서 '넘어가기 쉬운 경계선들과 그것을 방해하는 내부적 요인을 갖고 있는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문화적 영역인가?'라고 묻고 있다." Bhabha, Homi K., ed. Nation and Nar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1990), 5, quoted in 이소희, "호미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한 고찰: 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104.

[96] Ibid.

호미 바바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특징이 자본의 전 지구화 현상으로 사람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여러 인종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차이를 가진 문화들이 만나서 문화적 혼종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 3 의 영역'에서 언술행위가 전제되어야만 '문화적인 전 지구화'과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호미 바바는 그의 책 *The Commitment to Theory* 에서 문화적 차이가 일어나는 경계선에서 수행되고 있는 문화적 번역을 진행하는 언술행위야 말로 문화적 전 지구화를 향하여 내딛는 첫 발자국이라고 주장한다.[97] 호미 바바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문화적 혼종성이 일어나는 '제 3 의 영역'은 두개의 이질적인, 즉 차이를 가진 문화가 만나 형성되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고리 같은 아직은 불안정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민족과 인종 간 교류가 더욱 많아지고 접촉이 잦아지는 시대이지만 그 문화적/경계적 위계와 불균형이 낳는 새로운 억압과 차별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제 3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상호접촉, 작용,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문화적 혼종성이 양날을 가진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3 의 공간에 위치하는 과정은 '교섭'(negotiation)과 '전이'(translation)'를 통해 이뤄진다. 교섭은 이질적인 것들이 내부로부터 침투하여 동일성을 해체시키는 것이고, 전이는 외부에서 새롭게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98] 모든 공동체의 중심부에서 강조하는 담론들은 보통 순수성, 본질과 정통을 강조한다. 그런데 교섭과 전이의 과정을 통하여 중심에서 주변으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담론에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호미 바바가 말하는 틈새인 '제 3 의 영역'에서 정형화된 식민담론이 해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식민담론 뿐만 아니라

---

[97] Ibid., 107.

[98] Homi K. Bhabha,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77.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열도 만든다. 결국 혼종성은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권력 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저항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 3 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섭'과 '전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제 3 의 공간'이 되어, 그 곳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환영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종교인 것이다. 즉, 기독교는 자기중심적 종교가 아니다. 타자를 향한 종교인 것이다. 이것은 본 회퍼가 말한 '교회의 책임성'과 연관되는데, 이기적이며 나르시시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 받아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사랑을 실천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현현은 타자에 대한 책임행위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타자의 고통, 가난, 불행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다. 타자의 고통, 가난, 불행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다. 그러한 타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타자에 관심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하여 책임을 다할 때, 내게 맡기신 사명(예수의 대리자)을 완수하는 것이다.

교회가 늘 '제 3 의 공간'을 염두에두고, 신앙교육을 하게 된다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식민화 하려는 욕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타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제 3 의 공간에서의 신앙교육은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에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4 장에서 제 3 의 공간에서는 어떤 신앙교육이 펼쳐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구제척인 실천적 방법을 제언한다.

Chapter Ⅳ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과 실천

우리가 이중시력과 혼종성의 탄력성을 갖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대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이다. 환대의 어원은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할 때, 새가족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인간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빙 둘러앉은 교회'[99]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은 한국 교회가 변두리와 중심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이들이 환영 받는 교회 공동체, 제 3 의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늘사랑교회 새가족부원들은 환대 의식과 방법의 '부재'에 따라 새가족과의 '차이의 부정'을 하고 있었고, 새가족들은 '차별'과 '배제', '획일화'나 '우리 교회화' 같은 강요로 인한 '억압'을 받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지를 고민해보겠다.

A. 패러다임의 변화: '획일화'를 넘어 '유쾌한 차이'로

기존 교인들이 새가족들과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체계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그 확고한 신념체계는 '내가 옳다', '우리교회는 옳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 '내가 배운 신앙 교육이 옳다'정도가 될 것이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새가족들은 5 주간의 1:1 양육 과정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종교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예배(수,금)

---

[99]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3.

참석을 권면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새가족들에게 억압으로 느껴졌다. 또한, 새가족 부원들은 새가족이 다니던 이전 교회의 신앙생활을 존중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늘사랑교회의 신앙 생활 모습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가족들을 '늘사랑교회화' 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념체계는 획일화를 만들고, 누군가를 강요하고 억압시키게 되는 폭력이 된다. 이제 이러한 신념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에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신념체계가 있다. 그 신념체계가 시대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의 기반이 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어떠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교회의 특징이 드러난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우월주의, 절대주의 같은 '식민주의적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감정적 가정과 경험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반응하고 또 그런 반응을 흑백논리로 강화시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겪는다. 이것은 서구의 논리구조가 우리 문화 저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차이를 부정하는 획일화를 만들게 된다. 이제 교회는 이 획일화를 넘어 차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의 과학적 혁명들의 구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원래는 인문사회과학이나 신학의 영역이 아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사용된 말이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의미에 대해 약 22 가지를 말하였는데 이것을 한스 큉(Hans

Küng)은 해석, 설명, 이해의 모델로 적용했고, 토랜스(Ellis Paul Torrance)는 인식의 틀로 고찰했으며, 히베르는 신념체계로 이해하면서 이 개념을 인문 사회과학과 신학에 적용하였다.[100]

서구의 대표적인 사유 방식인 양자택일의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것이냐 저것이냐"(either/or)논리는 절대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전제하는 바, 이는 상호 의존의 개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탈식민주의 관점은 "이것도 저것도"의 양자모두 긍정하는(both/and) 양가적 논리를 추구한다. 탈식민주의 시선은 모든 것이 '동일한'것이 아닌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 즉, 독특한 '차이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레티러셀(Letty M. Russell)은 다름을 가리켜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선물, 유쾌한 차이"[101]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환대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타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 속의 세계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차이를 가로질러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 환대라고 나는 주장한다."[102]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부름 받은 이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 방식을 우리가 깨닫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러셀(Letty M. Russell)은 "환대 안의 일치"를 언급한다. 환대를 통하여 '동일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차이'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환대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4 가지 단서를 제안한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는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과 그리스도를

---

[100] 이형기,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198-99.

[101]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92.

[102] Ibid., 93.

영접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 일치가 확증되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많은 목소리, 문화, 그리고 언어들이 있게 하셨고, 교회는 그 주변의 세계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차이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여, 교회들로 하여금 각 나라와 문화의 일부임을 강조하신다. 바벨탑 사건은 다양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명하는 사건이기에 세계의 유쾌한 다양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는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은 종교와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들과 창조물들의 정의와 평화와 온전함을 추구함으로써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이에 의하여 분열된 상태로 매일을 살아간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토록 분열된 창조물들을 '일치'[103]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교회는 값을 치루고 산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다."[10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일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타자를 향하여 개방하라고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103] 레티 러셀은 "환대는 균일함 없이 일치를 이루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면서, 새롭고도 다른 종류의 일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대를 통하여 동일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차이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낸다. '이것이냐/저것이냐', '옳음/틀림', '승리/패배'가 없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치와 종교들과 국가들 사이에서 일치를 신실하게 나태는 여러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공동체 안에서 환대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영접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개방성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치가 '타자'인 낯선 자들과 하나님의 환대를 나누는 것이므로, 일치와 차이는 한곳에 속해 있다고 본다."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08-9.

[104] Letty M. Russell, *Church in the Roun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14, quoted in ibid., 113.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쳐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인으로 섬기고 그를 본받아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치 된 모습,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령의 증인으로서 하나 된 모습들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말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복음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 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볼 때에,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105] 환대 안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갈망하시는 모습이다. 만일 우리가 인종, 계급, 성별, 세대차이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한다면, '환대 안의 일치'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both-and'를 지향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양성의 창조물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대를 향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쾌한 차이'를 가져다준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삶으로 하여금 "해방시키는 길이 됨"[106]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해방시키는 차이를 주장하는 단서 3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단서는 차이를 본질화하지 않는 것이다. 차이를 본질화시키는 것은 차이를 억압의 구조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105] 요한복음 17: 21-23 (새번역)을 참조하라.
[106]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17.

본질주의자들은 인종, 성, 계급, 성적 성향 등은 창조된 본성의 일부라서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보면, 지배 그룹은 세계를 통치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억압, 빈곤, 착취 제국주의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예컨대 남성이 먼저 창조되었고 여성에 의해 나중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죄의 근원을 여성에게 돌려 여성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문화적으로 발생한 생각들을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주장에서 풀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단서는, 차이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차이는 한 그룹의 속성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룹들 사이의 관계의 작용과 그룹들이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으로 생겨난 것이다."[107] 이런 인식이 그룹 안에 있다면, 서로가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차이를 존중 할 수 있게 된다. 그 지점에 이르면, 차이를 본질화하거나 순종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진다. 셋째 단서는 차이를 넘어서 연합과 제휴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이 작업은 그룹들이 노력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도록 연결망을 발전시키고, 탈식민시대 주체로서 동반자 역할의 기회를 제공한다.[108]

그러므로 교회는 주기적으로 '획일화'를 넘어 '유쾌한 차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는 설교나 교육의 장이 펼쳐져야겠다. 특히 새가족부원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교육 커리큘럼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107]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71,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18.

[108]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18–19.

있는 기존 성도들이 새가족과의 차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고체계로의 '패러다임이 변화' 되었을 때에, 교회는 공정한 하나님의 환대에 진정 동참하게 될 것이다.

앞서 살폈지만, 차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환대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대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후에 다과를 제공하거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에 그친다면 누구나 환대의 개념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탈식민주의적 환대, 성경적인 환대는 나를 열어 나와 다른 낯선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체계를 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부정하여 발생하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고체계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차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한다면 진실한 평화와 공생이 가능한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B. 온전한 환대: '나'를 넘어 '너(타자)'로

낯선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낯선 이를 만나야만 한다.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날마다 새가족을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맞아들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 문제들은 2 장 질적연구 결과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차별, 배제, 강요로 인한 억압으로 말이다. 왜 낯선 이(새가족)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났을까? 인식 부족(부재)와 진정한 환대적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경험의 결핍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타자를 맞이함을 배워서 '나'를 넘어서 '너(타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나를 넘어 '너'가

되고 하는 노력은, 동질화와 획일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또 '나'와 '너'를 넘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나'와 '너'가 상호 의존적 존재가 되자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Henri Nouwen)은 환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대는 쌍방향 통행의 상호 간 목회를 말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고, 서로 다른 혹은 '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배우는 것"[109]이다. 타자는 나와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다. 내가 그런 낯선 자들이 되는 것이 타자화이다.

문성훈은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타자란 단지 나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의 타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자란 인식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나의 영역으로 통합될 수 없는, 따라서 향유적 자아로서의 나의 능력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나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를 의미하며, 이는 타인의 얼굴로 나타난다… 타자의 얼굴은 아무런 보호막도 변호자도 기득권도 없고, 낮고 비천함 속에서 배고프고 헐벗은 가운데 나에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자의 얼굴이다. 이런 고통 받는 자의 얼굴이 진정 타자인 것은 바로 이것이 세계를 향유하고 지배하려는 나의 자유가 부당함을 일깨우고 그의 호소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10]

또한 레비나스는 '절대적 타인'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인간은 향유적 존재로서 자기중심적 내면성을 형성하면서 타인과 분리되어 자기 자신에만 전념하지만, 동시에 이를 초월하여 자기와 동일화할 수 없는 자기 밖의 절대적 타자를 욕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자는 자아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자아에 통합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욕망은 무한히 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자기초월은 더욱 강해지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도 커진다.[111]

---

[109] Henri Nouwen,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1975), 79-81,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9.

[110]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401-02.

[111] Ibid., 402-03.

레비나스는 서양 철학의 보편주의가 전제한, 동일성 사고를 문제 삼으며 자아중심의 윤리가 타자중심의 윤리로 전화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데리다는 환대를 “얼굴에 열리는 것, 더 정확히는 얼굴을 ‘맞아들이(accueil)’는 것 그 자체의 이름이 된다.”[112]라고 말했다. 여기서 얼굴을 맞아들이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강남순은 ‘얼굴’을 타자 인식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환대를 베푸는 ‘주인’이 ‘미소’ 없이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이름, 성별, 국적, 인종, 성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표지들이나 범주들 ‘이전에’ 또한 그 표지들 ‘너머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타자 인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113] 이런 의미에서 얼굴을 맞아들이는 것은 타자에게 열리는 것이며, 타자와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데리다의 환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환대이다. 쉽게 말해, 주체측이 주도권을 가진 초대가 아니라 타자측이 주권을 갖는 방문이 되어야 한다. 조건적 환대는 환대의 주체가 타자를 선별하여 자신의 기준에 맞는 타자만 받아들인다. 따라서 타자의 이질성이 모두 제거된 채로 맞아들여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타자와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질문은 자연스레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집주인 행세를 위해 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무조건적 환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잠시 생각해보자. 새가족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신상기록 카드’라는 것을 작성한다. 말 그대로 새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직업은

---

[112] Jacques Derrida, *Adieu a Emmanuel Levinas 아듀 레비나스*, trans. 문성원(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6), 51.

[11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7.

무엇이며, 직분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몇 살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타자를 분석한 뒤에 맞아들인다면 이는 온전한 환대가 아닌 것이다. 결국 타자를 자기화(교회화)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이제 '주인'(기존신자)과 '손님'(새가족)이라는 인식경계를 넘어 새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들이고, 그들과 공생해야 한다. 성경은 자신의 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우리'와 같이 대하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한다. (레 19:33-34). 그리고 예수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114]고 권고하신다. 문성훈은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의 타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한다:

> 레비나스에게 타자가 동일성 논리에 따라 세계를 대상화하는 향유적 자아의 자기중심적 자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면, 왈쩌에게 타자란 나, 혹은 우리와는 다른 생활방식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차이의 존재이다. 데리다에게도 타자란 마찬가지로 차이의 존재로서 단적으로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즉 언어, 문화, 정체성이 다른 이방인이다.[115]

여전히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는 이질적인 인종적, 문화적, 신앙적 접촉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온 외국인들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정서와 태도들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목격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혐오하는 자민족 중심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혹은 종교적 우월주의 또는 '왜곡된 토착주의'[116]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타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정서와 태도를 가짐에 있어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 안에도 강남순이 말하는 '왜곡된 토착주의' 형태가 종종 드러난다.

[114] 누가복음 10:27 (개역개정).
[11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407.
[116] 강남순,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325-30.

내가 시무하고 있는 늘사랑교회를 살펴보면, 새가족의 신앙적 배경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가족 교육을 통해 급진적으로 그들을 '늘사랑교회화'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새로 등록한 교인은 늘사랑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1:1 양육 과정을 의무로 5 주간 이수해야만 한다. 그 내용 중에는 공예배 참석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일부 새가족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이 질적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자본주의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일주일이 모자랄 만큼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다. 새벽예배나 공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환경과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주중 예배참석의 강조는 억압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장로가 되서, 권사가 되서, 집사가 되서 새벽 기도도 참석 안 해?'이다. 심지어 '공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도 서슴없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의 저변에는 '나는 새벽예배와 공예배 참석을 하는데, 너(타자)는 왜 안하느냐?', '우리교회는 새벽예배와 공예배 참석이 의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주일 예배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 되었거나 힘든 새가족들에게는 사실 큰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새가족에게 매일 드려지는 새벽예배와 주중 공예배(수,금) 참석 의무화는 억압과 강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오히려 새가족들에게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변화시키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본래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겠다. 예배 학자인 조기연은 '예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예배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고 결신자를 이끌어내는 행위만이 아니며,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만도 아니다. 예배자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거나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서 절정을 이루는 구원사의 총체를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고 재현하고 선포함으로써 성령께서 예배자들에게 이 모든 구원사의 은총을 힘 입혀 주시는 신학적인 행위이다. [117]

늘사랑교회는 새가족의 신앙 성숙을 위해 교육 목적을 두고 공예배 참석을 강조한다. 그러나 조기연의 글에서와 같이 예배는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가족이 만약 강요와 억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예배의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교회는 새가족 교육 과정 속에, 예배 참석의 의무화 보다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새가족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며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제적인 배경과 환경도 고려하여 경청해야 한다. '나'를 넘어 '너'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경청은 앞서 레비나스가 언급한[118] '자기초월'이 강해지는 방법이다. 즉, 교회는 타자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을 향한 시선과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지닌 온전한 환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탈식민주의적 새가족 교육은 그들을 '늘사랑교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C. 제 3 의 공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차별과 배제'를 넘어 '환대의 공간'으로

---

[117] 조기연,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의미," *기독교 사상* vol 652 (2013): 34.

[118] 본 프로젝트 58 쪽, 레비나스의 '절대적 타인' 개념 설명을 참고하라.

교회는 새가족을 환대함에 있어 인식과 방법의 부재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제 3 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탈식민주의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제 3 의 공간'에서 어떠한 개념 혹은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고정되어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차별과 배제, 그리고 환대 의식과 방법의 부재가 생긴 원인은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절대기준이 되어 다름을 배제하고, 그것을 우월하다고 여기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한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신뢰' 즉, 오리엔탈리즘[119] 재생산에 대한 공모의 결과였다. 힘과 권력의 작용원리로 생존해 온 서구 중심의 기독교와 교회도 거짓과 무의식적인 폭력을 일삼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제 3 의 공간은 힘과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기독교의 교리가 다양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 3 의 공간이 되기 위해 '탈 우리교회화'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한다. 새가족이나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들어 왔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리기보다 자기 교회 교역자들, 프로그램, 구조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어서 새가족 교육과 만남을 통해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배제하고 무시한채로 '우리 교회화'를 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과의 '다름'과 '차이'는 용납 될 수 없다.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이 '다름과 차이'의 부정'이 결국 새가족들로 하여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했다. 교회는 제 3 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대로 제 3 의 공간에서 '교섭'과 '전이'가 일어난다. 제 3 의 공간에서 '교섭'과 '전이'가 일어났던 좋은 예는 인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119]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내용은 각주 89 번의 내용을 참고하라.

> 기독교의 의미와 개념들은 힌두교라는 종교 전통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차이를 지닌 것으로 재개념화 되었는데 한 예로 기독교의 세례를 받아들이면서도 성찬을 거부한 것에서 나타난다. 성찬의 거부는 육식을 먹지 않는 힌두인들의 문화로부터 발생된 것인데 이들은 기독교가 육식을 하는 영국인들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인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려준 선물로 받아 들였다.[120]

인도의 원주민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도, 결코 전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유산을 버리지 않고 깊이 간직한 것이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에서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성육화의 의미'가 육식을 하지 않는 힌두인들에게는 '세례는 받아들이지만, 성찬의 거부'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도 힌두교에 들어간 기독교의 대표적 개념인 세례와 성찬이 제 3 의 영역에서 교섭을 통해 전이되어 이전에 기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찬의 개념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탈 우리교회화'를 통해 새가족과 비독교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 그들이 교회를 제 3 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 중 하나이다. 기존의 신자들은 자신과 더불어 타자를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억압의 종교'가 아닌 '해방의 종교'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제, 교회를 제 3 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인 '환대의 밥상 준비'와 '환대의 예배'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C.1. 환대의 밥상 준비

[120] Homi K. Bhabha,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232-34.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을 가시적으로 환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들과의 식탁교제이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을 계약법에 넣어 엄격한 규범으로 지킬 정도로 홀로된 여성, 고아,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여 따뜻하게 환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음식은 환대의 표현"[121]이며 환대는 음식과 신앙이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정경호는 창세기 18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장면을 The New Interpreter's Bible 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아브라함의 환대의 첫째의 모습은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seeing),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running to meet), 존경을 표하는 행동(honoring), 초대하는 행동(inviting), 새 힘을 얻도록 자신의 공간에서 쉬게 하는 행동(refreshing),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preparing),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serving)으로 나타난다.[122]

아브라함과 사라는 낯선 그들을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대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행한 밥상교제는 환대의 구체적 행동이었다.

예수는 사회적으로 정죄 받고 소외 받은 이들, 타자화된 이들을 그의 밥상 안으로 불러들였다. 식탁이 타자와 맞아들이기의 공간이 되었다. 마치 잔치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잔치자리의 신랑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123]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흔히 '잔치'로서 비유했으며(눅 14:15-24),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마 11:19) 혹은 '세리와 죄인의

---

[121] Wendy Whiteside, *Food and Faith 일용할 양식과 신앙*, trans. 유연희 (미간의 책), 39. quoted in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34*, (2010), 191.

[122]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 463, quoted in ibid., 194.

[123] 마가복음 2:13-17 을 참조하라.

친구'(막 2:16)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을 즐겨하셨다. 박재순은 예수가 당시 죄인으로 정죄 받은 이들과 밥을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인 것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사회체제에 도전한 것으로 보았다.[124] 김동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기득권자들보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식탁 교제의 자리로 불러 모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25] 탈식민주의 관점으로는 이 잔치 자리는 예수가 '제 3 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예수는 이 식사를 일상으로부터 탈출인 '축제'로 여겼다. 남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적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126]고 대답하였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뜻하는 결혼식장에서 축제의 만찬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예수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눅 22:14), 제자들의 발을 씻기었다(요 13:3-14). 또한 낙망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잡아서 함께 먹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떠날 때에 양식(빵)과 주머니, 그리고 돈과 전대를 지참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127]. 이것은 철저히 현지인들의 환대에 의존하라는

---

[124] 박재순,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 (서울: 천지, 1988), 227.
[125] 김동선,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밥은 하늘입*니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70.
[126] 마가복음 2:19 (개역개정).
[127] 마가복음 6:10 (개역개정).

것을 뜻하며, 이는 공동체적 의존성을 전제하고 강조한 것이다. 예수는 서로를 의지하고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본 것이다. 지위고하와 별 관계없이 초대하고, 초대되고 혼합되어 함께 식사하는 개방된 밥상은 다름이 이루어 낸 '하나 됨'이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족을 가리키는 한국말 단어인 '식구'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 가족의 또 다른 단어인 '식구'는 '음식을 함께 먹는 입'을 뜻한다. 함께 먹는 그 속에는 연대감과 동질성이 있기에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고 혈연을 넘어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이 잘 사용 하는 말 중에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 '이게 밥 먹여주는가?'라는 말이 있다.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식탁교제를 성의껏 잘 준비함으로 낯선 이들(새가족)을 하나님의 환영의 자리로 초대할 필요가 있다. 지위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다. 이것이 환대의 밥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낯선 이들과 식사하기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대의 밥상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해야 할 것이다.

C. 2. 환대의 예배

각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다르다. Mr. Bean 이라는 영국 코미디 TV 프로그램 시리즈 중에, 'Mr. 빈 처음 교회 가던 날'[128]이라는 제목의 짧은 에피소드는 교회가 새가족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다. Mr. 빈은 처음 교회 가던 날, 주차 안내를 받지 못해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다. 이어 예배당에 들어 온 그는 다들 하나씩 들고 있는

[128] https://www.youtube.com/watch?v=S-dJdxdjpyk 를 참조하라.

성경·찬송가에 관심을 갖지만, 누구하나 그에게 함께 보자고 권하는 이가 없어서 스스로 먼저 기존 성도에게 다가가 함께 보자고 한다. 또한 다 같이 착석하는 예배 순서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예배드리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기존 성도는 팔짱을 끼고, Mr. 빈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에 바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Mr. 빈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한다. 가히 고집스럽고 독단적이며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을 희화화 한 작품이겠다. 이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예배와 성도의 모습이 내가 시무하는 늘사랑교회의 예배 안에는 과연 없을까? 새가족들은 과연 예배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우선 늘사랑교회는 주차 안내가 없다. 새가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주차를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사회자의 멘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크린으로 만 다음 예배 순서를 안내한다. 입석과 착석의 순서가 익숙지 않은 새가족들은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낯선 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하여, 개인좌석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교회 안에서 나왔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온 새가족들이, 오히려 예배 안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교회는 이제 예배 환경에서 새가족들이 따뜻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환영 받는 '환대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탈식민주의적 환대 예배로의 갱신 과제는, 다양한 예배의 신학과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지향점이 배타적이지 않도록 조화롭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성찬예전과 설교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만찬 예전이 두 축을 이루었다.

예배학자인 폴 훈(Paul Hoon)은 예배를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129]이라고 했다. 박해정은 예배는 “하나님의 에토스(ethos)와 인간의 파토스(pathos)가 만나는 자리” [130]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참예한 자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자리임을 언급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날 교회는 예배 순서와 구성에 더욱 관심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형석은 고든 래트롭의 말을 인용하여, “예배 순서는 표현의 부차적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일으키는 창조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131]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배의 순서나 구성을 부차적 도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 결과 ‘설교와 찬양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러한 사고 체계가 왜곡된 개신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한국 교회의 ‘설교 중심의 예배’를 만들게 되었다. 설교중심의 예배는 설교자의 메시지에 따라 예배자와 예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수여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응답이 접촉되는 지점이 바로 예배임을 알고, 교회는 이제 성찬 예전에 대한 신학과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성찬 예식의 또 다른 중요성은, 바로 환대의 접촉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 살 때 어학연수를 위해 아주 잠시 호주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영어 수업 전에 갑자기 교수가 성찬식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분명히 성찬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성찬기 없이, 그것도 교회가 아닌

---

[129] 정장복, *현대사회와 예배·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468.

[130] 박해정,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강의 중, 06/08/2017 클레어몬트 신학교 강의실 201 호에서

[131] 나형석,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의 연구,” *신학과 실천* vol.16 (2008), 135.

곳에서 성찬식을 하지?'였다. '이렇게 준비 없이 성찬식을 해도 되는 건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저렇게 성찬을 집례해도 되는 건가?'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과 염려가 들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20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교회 밖에서 또는 성찬기 없이 성찬자 없이 성찬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호주인 교수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먼저 큰 빵을 떼어낸 후에, 빵을 돌려 가면서 떼어 내라고 말했다. 나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찬식이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너무 좋은 성찬식으로 내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 낯설고 서먹서먹했던 서로가 성찬식을 통해 서로에게 미소를 보이고, 빵을 나눔으로 인해,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장으로 바뀌었음을 경험했다. 거기에는 조명도, 음악도, 성찬기도, 목사도 없었다. 문화와 배경이 다른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한 연령층,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성찬식으로 인해 낯선 그 곳에서 타자화의 반대의 경험, '하나 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만찬이 왜 환대의 접촉 지점이 될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각자의 나라 안에서만 경험했던 성만찬의 경험이 탈영토화가 되었을 때, 새로운 경계에서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것들을 해체하는 호미 바바가 말한 혼종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초대 기독교부터 성찬 성례전은 매주일 거행된 예전이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어 살아 있는 신앙을 계속해 올 수 있었다. 바울은 성만찬을 통한 '하나 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32] 성만찬이 하나 되게 하는 영적 친교의 한 방편임을 알리는 것이다. 성만찬 자리 안에서 만큼은 억압, 차별,

---

[132] 고린도 전서 10:16-17 (개역개정).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배제, 소외가 사라지고 어느 누구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신분과 계층과 인종에 관계없이 연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늘사랑교회는 1 년에 2 회 성만찬 예식을 시행한다.[133] 그리고 참예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세례교인 이상이다.[134]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못한 새가족은 성만찬에 참예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법에 따라 참예 할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새가족은 소외를 당하는 것이다. 거룩과 구별의 본래 기능이 차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환대의 차별'의 예로, 진보교단인 카나다연합교회, 미국 UCC, UMC 교단을 빼면 거의 모든 교회가 성만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교인에 국한되어 있다.

성만찬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만찬의 주체가 되는 예수는 그의 식탁에 직업과 신분을 뛰어 넘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 죄인들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수를 배신한 유다까지도 식탁의 자리에 있었다. 성만찬은 이런 의미에서 개방성을 가진다. 환대의 예배 안에 성만찬이 갖는 개방성은 여기저기서 상처 받고 고통 받는 이들이 누구하나 배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즉, 새가족이라는 이유로 성만찬에서 배제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상식은 교제의 신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코이노니아' 친교의 의미는 주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 공동체의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간의

---

[13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 24 조 5 항 성례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교회는 매년 2 회 이상 성례전(세례예식과 성찬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134]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편찬한 *새 예식서* 21 쪽에 2 항에 의하면, "성만찬은 세례 받은 신자로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섬김과 나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근거해야 한다."[135] 환대를 위한 예배의 자리에는 성만찬 예식이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만찬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며,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환대의 예배 목표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 예식은 교회가 더 이상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인식하고, 힘이 더 이상 억압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으며 정의와 평등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되는 제 3 의 공간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매달 1 번씩은 성만찬을 시행하고, 분급자 중 몇 명이라도 새가족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차별과 배제가 아닌, 사랑과 환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환대의 예배는 '획일화를 넘어 유쾌한 차이를 인정'하고, '나를 넘어 너(타자)가 되기 위함과, 교회가 '제 3 의 공간'이 되고자하는 예배의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환대의 예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135] 정상식, "하나님 나라 잔치의 개념으로서의 기독교 성찬 성례전을 통한 예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77.

Chapter V

결론 및 제언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방문한다.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동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난다. 새가족부나 기존 신자들은 낯선 새가족들을 여러 가지로 환영하는 방법에만 연구를 하거나 또는 그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결과에 주로 집중한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이, 삶/생각/가치관/언어 등이 '다른' 새가족 모두에게 어떻게 잘 적용될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과연 이방인이며 나그네와 같은 새가족들이 현재 교회들의 이러한 환영 방법들에 의해 진심으로 환대 받는 느낌을 받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새가족과 새가족 부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총 4 개의 범주와 8 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심층 면담 결과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새가족 부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새가족 부원들은 환대의 방법과 지속적 환대 의식의 부재로 인해 새가족을 온전하게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새가족 부원들은 새가족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셋째, 새가족들은 예배 안에서나 교회 생활 안에서 고착화 된 기존 교인들의 의식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있다. 넷째, 새가족은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강요로 인한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교회가 새가족 부원들과 새가족 모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대'에 관한 신학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포스트모던,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속에서 다극화, 다양화,

혼종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낯선 자 즉, 새가족에게 연민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평등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나는 실제로 새가족들을 환대하기 위해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 유쾌한 차이, 타자 맞아들이기, 제 3 의 공간 만들기 등 이러한 네가지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목회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넘어 억압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인터뷰 과정 중에서 새가족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낯선 자들은 원래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자신도 교회 중심부로 들어 갈 수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환대의식이 부재했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낯선 자들에 대한 환대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니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공간 속에 주변부와 중심부를 나누게 하는 구조와 의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가족들은 마음대로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구조, 그들은 수년간은 예배 위원이나 대표 기도자로 설 수 없는 구조가 보였다.

또한 새가족들은 무언 사회의 예배의 순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저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 놓기만 급급했던 모습들이 보였고,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교회헌법)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과연 장애인 분들과 영유아들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다양성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왜냐하면 나는 지극히 보수적인 인간이여서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싫어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이면서 낯선 이와의 만남을 힘들어하고, 새가족을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지 못했던 나였다. 내 안에 항상 다름과 차이를 거부하는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수업과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환대'의 올바른 인식과 방법을 깨닫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변화됨을 느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전도 생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 연구의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환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환 없이는 교회는 '제 3 의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회심하는 공동체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136]는 말씀을 지킨다. 대릴 구더(Darrell L. Guder)는 그의 책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에서 "다수의 전통은 갑자기 등장한 주변의 소수를 통한 이러한 도전들에 대하여 사실상 자신들을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부르는 복음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스스로 회심을 체험하게 된다."[137]라고 언급한다.

이렇게 회심을 해체의 과정으로 본다면 회심 후 반드시 재건이 있어야 한다. 재건의 한 시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대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탈식민주의적 환대

---

[136] 에베소서 4:3 (개역개정).

[137] Darrell L. Guder,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 trans. 조범연 (서울: 미션툴, 2005), 282.

교육'[138]이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환대교육 제시는 '제도화' 과정이 아니라 '운동(movement)'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제도 교회라는 결론을 피할 수가 없다."[139] 이와 같은 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의 목적은, 새가족을 맞이하는 매뉴얼(Manual)을 만들어 획일성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지만 변화의 유동성, 개방성을 전제하고,[140] 하나의 운동 과정이자 환대교육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늘사랑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그리고 새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많은 애씀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새가족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새가족들이 공정한 환대를 받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 증오와 폭력 대신 정의와 평화, 치유와 변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 교회 다수에 속한 담당자들도 구더가 제시한 것처럼 회개, 회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소수인 새신자들을 통해 상호의존적 삶, 신앙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교회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속에서 다극화, 다양화, 혼종화를 경험하면서

---

[138] 2018 년 6 월 어느 날, 클레어몬트 신학교 강의실 201 호 강의실에서 김혜란 교수의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강의를 듣다가 문득 '교회에 환대 교육은 있으나 탈식민주의적 사고와 접근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같은 용어를 만들게 되었다.

[139] Howard Snyder, *The Problem of Wine Skins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rans. 이강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21.

[140]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30.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낯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포용을 할 수 있는 평등의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을 통해 새가족 부원들과 새가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를 경험하고, 환대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연구함으로써, 탈식민주의적 환대 교육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변두리와 중심의 구별이 있는 교회 구조를 갖게 하는 모든 형태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환대를 다시본다: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 제시 – 늘사랑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하의 연구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91711)의 김남중/김혜란 교수의 지도 아래 이강산에 의해 수행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김남중 박사 (njkim@cst.edu/***-****-****), 김혜란 박사 (hyeran.kimcragg@usask.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변두리와 중심의 구별이 있는 교회 구조를 갖게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은 없애고 극복하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기 위해 탈식민주의적 환대교육을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가족들과 새가족 부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참여는 교회 안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환대'를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강산 kangsan.lee@cst.edu / ***-****-****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는 약 1시간가량 심층 인터뷰에 참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 될 것입니다. 귀하의 참여는 교회 안에서 새가족으로서 혹은 새가족부원으로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진술함으로 모든 이들이 공정하고도 진심으로 환영 받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참여 함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탈식민주의적 새가족 교육 자료'를 제일 먼저 무료로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알려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 중 불안감, 슬픔, 피로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보관 될 것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제한된 수의 연구 관련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남중/김혜란 교수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귀하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적인 목적으로 귀하의 연구참여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음 등이 사용 된다면 귀하의 신분은 보호되거나 가명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와 관련된 정보는 본 연구가 종료 될 때까지만 보관될 것이면 그 후에는 파기 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이강산의 전화번호 ***-****-**** 혹은 kangsan.lee@cst.edu 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8-003]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____

연구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날짜*

____

주소

____

전화 *이메일*

증인의 서명

증인으로서의 나의 서명은 나와 동석 하에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 동의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합니다.

____

증인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증인의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서명 *날짜*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국내도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교회성장연구소 월간 교회성장 편집부. *한국교회 새신자 정착모델 베스트 4.*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식서 수정 위원회. *새 예식서.*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1.

김동선.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밥은 하늘입니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박원영. *새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출판부, 1993.

박재순.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 서울: 천지, 1988.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 B&P, 2006.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오현선. *기독교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문학사상사, 2002.

이형기.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전명구.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 2018.

정장복, *현대사회와 예배·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3.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해외도서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Kim-Cragg,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__________,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Kindle, 2018.

번역서

Bhabha, Homi K.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lated by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Boersma, Hans.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Reappropriating the Atonement Tradition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혁주의 속죄론*. Translated by 윤성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Translated by 손규태 and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Derrida, Jacques. *Adieu a Emmanuel Levinas 아듀 레비나스*. Translated by 문성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6.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새로운 교회가 온다*. Translated by 지성근. 서울: IVP, 2009.

Guder, Darrell L.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 Translated by 조범연. 서울: 미션툴, 2005.

Huddart, David. *Homi K. Bhabha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lated by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Mouw, Richard. *Uncommon Decency 무례한 기독교*. Translated by 홍병룡.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aid, Edward W.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Translated by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2007.

Snyder, Howard. *The Problem of Wine Skins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ranslated by 이강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Stott, John.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lated by 정옥배. 서울: IVP, 2005.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lated by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룩, 2017.

<u>학술지 논문</u>

강옥조.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vol 82 (2012): 135-61.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2012): 141-70.

김혜령.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 *제 3 시대* vol 92 (2016): 6-10.

나형석.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의 연구.” *신학과 실천* vol.16 (2008), 123-52.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 철학* vol 21 (2011): 391-418.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vol 39 (2015): 23-41.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vol 49 (2004): 188-214.

이소희. “호미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2001): 103-25.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2010): 177-209.

조기연.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의미." *기독교 사상* vol 652 (2013): 26-34.

최종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vol. 61* (2011): 389-413.

<u>학위 논문</u>

정상식. "하나님 나라 잔치의 개념으로서의 기독교 성찬 성례전을 통한 예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